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 11;28)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 떠나기에 앞서

♡그리스도 말씀하심.

지금 네가 떠나려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간다. 비록 너는 너, 나는 나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걷는다.

나는 너를 "내 다른 자아" 라 부르겠다.

내가 내 창조물인 사람의 살과 뼈 속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을 취하였으니 정말로 나와 너는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과 지금 네가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도 또한 같다. 그러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삶은 죽음의 관을 쓰고서야 완성되었다.

네가 열네 곳을 거쳐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네 삶의 관을 쓰고 가야만 비로소 완성될 길이다.



천주교 서대문교회

† <제1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빌라도 역시 '내 다른 자아'

그가 나를 심판한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다.

비록 의롭지는 못하지만

그는 합법적 권좌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순종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빌라도의 판결에 순종하듯이

내가 너보다 윗자리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너도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드리는 말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주님은 순종하시느라고 목숨을 바치셨지만

순종이란 더도 말고

제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남에게 고분고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눈에 덮인 껍질을 벗겨 주시어

저를 다스리는 이들 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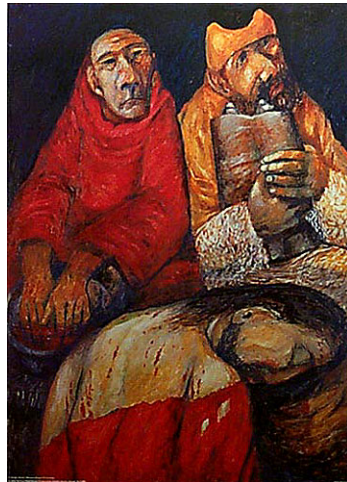
제가 순종하는 이가,

다름 아닌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하소서.

네, 제가 복종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 <제14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이렇게

한번은 죽어야 할 내 목숨은 끝이 났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너를 위한

다른 생명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내 생애의 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이제 내 교회 안에서, 내 교회를 통해

나의 새사업을 시작하련다.

'내 다른 자아야', 네게 바란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나의 사도가 되고,

나의 희생 제물이 되고,

나의 성인이 되어 다오.

♣드리는 말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 마음은 간절하나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짧게 사신 이 세상에서

못다 하신 가르침,

못다 겪으신 고난,

못다 베푸신 사랑의 손길을

제가 맡아 하도록

주님 은총으로 도와 주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도와 주소서!



† 마치며...

부활하신 예수님...때때로 당신 속을 까맣게 태우는 저입니다...

그렇더라도 품 안의 자식처럼 사랑 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 동안 내내 당신과 하나 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소서...

† <제13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나는 희생 제사를 마쳤다.

그렇다.

나의 미사는 끝났다.

그러나 '내 다른 자아야',

내 어머니와 너의 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 어머니는 내가 아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숨 끊어져 있는 내 몸을 당신 팔로 안으셔야만 한다.

너 역시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 떠날 때

내 어머니처럼 비탄의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

사별의 슬픔을 맞거든 이것을 생각하여라.

내 어머니 마리아

내 갈바리아의 고난 함께하여

수많은 영혼 구하셨다.

너의 슬픔 역시 영혼들 구하는 값진 대가가 될 수 있음을.

♣드리는 말씀

주님, 간절히 청하옵니다.

사랑하는 이 멀리 떠나고 자식들 집 떠날 때,

정든 이들 당신 부르심 받아

주님 곁으로 떠날 때,

헤어지는 아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

주님 집으로 부르기 원하시니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설령 주님의 뜻 거스리는 말 한마디로

제가 이들 목숨 되살릴 수 있더라도

어찌 감히 제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 <제2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십자가,

이 큰 나무 덩어리는

아버지께서 손수 고르시어 내게 주신 것이다.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대체로 너의 일상 생활에서 생겨나는 것들.

그 역시 아버지께서 손수 고르시어

네게 주시는 것이다.

나아가 정중히 받아라.

'내 다른 자아야,' 용기를 내어라.

네가 짊어질 짐이

한 근이라도 더 네 힘의 한계를 넘지 않게 하겠다.

♣드리는 말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저에게는 매일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조로이 반복되는 나날들,

갓가지 짜증나는 일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실망, 긴장, 걱정, 경쟁, 스트레스.

이 십자가들,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가 뒤에서 거들어 드리는 것임을

때마다 느끼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소서.

비록 저는 주님 십자가

한 귀퉁이를 들어 드리지만

주님은 저의 십자가 전체를 짊어져 주시고

저는 한쪽만 지게 해주심을

나날이 되새기게 해 주소서.



† <제3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우주를 만드시고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느님이

나무 한 토막 무게에 눌러 쓰러지고 마는

한날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

하느님 아들의 이 나약한 모습은

그야말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냐.

내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너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네가 진정 '나의 다른 자아'가 되려거든

너도 네 자신의 나약함을 비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드리는 말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가 어찌 달리 하겠습니까?

제 성깔, 번덕, 번민, 조바심, 주눅, 피로,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모든 흥과 나약함을

원망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인생에 매겨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오니

인간성의 '장애자'인 저의 고충을

기꺼이 겪으며 살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결정 많은 제 자신이라도

고마운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나설 용기를 주소서.



† <제12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이제 십자가는 내 사랑의 작별을 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목마르다."

"이제 다 이루었다."

말을 하려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야 하고

조금만 꿈틀거리려도 몸,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새로이 깨어난 아픔이 온몸의 신경에 흘러 퍼진다.

이제 달려 있을 만큼 달려 있다가

한번 죽을 내 목숨은 사람의 속성 다 비우고

가물가물..... 마침내 숨을 거둔다.

♣드리는 말씀

예수님, 나의 하느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오든, 어떻게 닥치든,

언젠가 있을 저의 죽음을

그 슬픔, 그 두려움과 함께 주님께 바칩니다.

어찌 제가 살 시간을

일초라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로

저의 죽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느님,

오, 우리 하느님,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저희가 모르고 있사오니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 <제11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느냐?
사형 집행인들이 내 팔을 잡아 끌어 당긴다.
손과 손목을 나무 위에 밀착시킨 후
내 살 껍질을 대못을 들어 대고
묵직한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치자
내 머리 속에서 폭악이 터지는 듯
갈기 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영혼의 비명 소리 터져 나온다.
연이어 다른 팔을 움켜 잡고.....
까무러칠 듯한 아픔에
내 입에선 격한 신음 소리 뿜어 나온다.
그 다음, 무릎을 들어올려
발바닥을 나무에 압착시키고
사정없이 망치로 못질한다.

♣드리는 말씀

오, 하느님!

제 눈앞에 주님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 영혼이 이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걱정, 근심, 고통, 그 어떤 고생이 닥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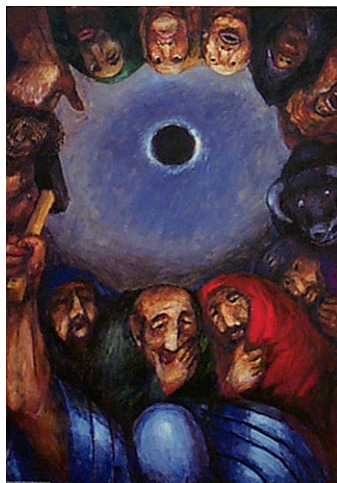
원망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 구원의 손이여,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준 고귀한 십자 나무여!



† <제4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채찍질로 헤어진 살,

짐승 다루듯 걸어채인 내 몸골,

살 터지고 멍든 내 모든 타박상을

일일이 헤아려 보고 계신다.

어머니 영혼은 신음하며 울부짖어도

당신 입술에선

저항이나 원망 섞인 말 한마디 새어 나오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드러내 보이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의 순교를 함께하신다.....

나는 어머니의 순교를 함께하고 있다.

주고받는 눈길 속에 애통한 마음 숨김없이 오간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드리는 말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고통을 바라봄이

스스로 고통 겪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심을.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앓이, 몸앓이, 슬픔, 외로움 겪을 때,

하던 일손 놓고라도

다가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저의 어려움과 아픔도

벗들의 눈길에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 함께 어울려야

선업을 맞쌀아 가게 된다는 것을.



† <제5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온 몸에 힘이 다 빠졌다.
나 혼자 힘으로는 십자가 지고
한 발자국도 더 땔 수 없다.
급기야 로마 병사들이
시몬을 시켜 내 십자가 운반을 거들게 한다.
시몬도 너처럼 '나의 다른 자아',
너도 시몬처럼 나에게 힘을 빌려 다오.
네 이웃의 어깨에 메인 짐을
네 손으로 받쳐 줄 때마다,
네 손은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 주는
고마운 손이 된다.

♣드리는 말씀

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설것이 한번 해주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주워 올리는 일,
어린이 작은 일 하나 돌보아 주고
길에서나 상점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
배고픈 이에게 먹거리 한 움큼 베풀고
혈벗은 이에게 걸칠 옷 하나 돌려 주는 일,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고,
길 잃은 사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일,
누구에게든, 무엇이거든, 크든, 작든,
친절의 손을 건넌 때마다
저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 제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께 해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 <제10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보아라, '내 다른 자아야',
세상에서 가장 딱하고 가난한 왕인 나,
바로 내가 만든 내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긴 채 서 있는 나를 보아라.
십자가는 나의 죽음의 침상,
이것마저 내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나, 나만큼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더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는 모든 것 다 가졌다.
아버지의 사랑 말이다.
너도 모든 것 다 가지려거든
먹을 것, 입을 것, 네 목숨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드리는 말씀

주님, 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제 가진 것 모두 뿐 아니라
제 자신도 함께 받아 주소서.
지위, 특권, 재산..., 이 같은 욕망의 굴레에서
제 마음 활가분하게 풀어 주소서.
저보다 더 가진 이웃 사람과
비교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악습의 뿌리를
제 마음 곳곳에서 뽑아 주소서.
제 의지를 다스리는 자존심,
제 위상을 높이려는 자만심,
이런 고삐에서 풀어 주시고,
저 아래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낮은 자리에 편안히 앉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 누리게 하소서.



† <제9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기진맥진하여 자갈길 바닥 위에
너부러진 내 몸, 이제 움짱도 못한다.
주먹질, 발길질, 채찍질에
나는 무릎 한번 펴 기력조차 없다.
그래도 내 뜻만큼은 내것이듯이
너의 뜻은 너의 것이다.
'내 다른 자아야',
이 점은 알아두어라.
너의 몸은 부서질지라도
세상, 아니 지옥의 그 어떤 것이라도
너의 뜻을 앗아 갈 수는 없다.
너의 뜻은 언제나 너의 것이다.

♣드리는 말씀

땅바닥에서 잠시 쉬시더니 가파스로 일어나
휘청 걸음 옮기시는 주님,
저의 뜻은 저의 것이오니
저도 그렇게 따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제 힘 소진되고 죄와 자책감이
자갈밭 위에 넘어진 저를 짓누를 때,
주님, 저를 유다의 죄로부터 지켜 주소서.
저 절망하는 죄로부터!
주님, 저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음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확신으로
제 마음 깊이 새겨 주소서.
저의 과거가 어땠어도
신선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음을.



† <제6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내 다른 자아야,'
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내 얼굴
용감하게 나서서 닦아 줄 수 없겠느냐?
내 얼굴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냐?
눈물 고인 집안 식구 얼굴들,
긴장감이 감도는 직장에도,
놀이터, 달동네에도,
법정, 병원, 그리고 교도소에도,
아니, 괴로움이 있는 곳 어디에나
내 얼굴이 있다.
거기서 나는 너를 찾는다.
내 얼굴의 피와 눈물을 좀 닦아 주었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

주님,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
해드리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과감히 나서야 할 의로운 일에,
희생이 따르는 곳에
제 마음은 쏠리기만 합니다.
겁내어 피하지 않는 의기와 굳은 기백을
저의 마음 한 가운데 심어 주소서.
주님, 저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머물러 주소서.
또한 우리 모든 이의 마음 안에 머무시어
피범벅이 된 주님 얼굴
우리 함께 닦아 드려
영광스럽게 빛나는 주님 얼굴을
우리 사는 세상에 환히 드러내게 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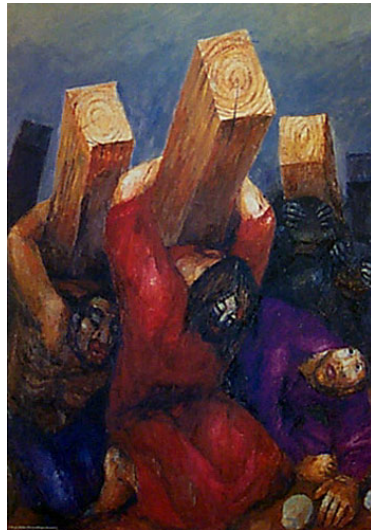
† <제7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내 다른 자아야'. 이 단계에서
쓰러지기 잘하는 너의 의지를 시험하련다.
이번에 내가 또 쓰러진 이유는
일단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진행시켜
선행으로 매듭 짓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기고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무거운 짐을 진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네게 휴식을 주겠다.
어서 나만 믿고 계속 가거라.

♣드리는 말씀

주님,
납덩이 같은 좌절감이
제 가슴에 내려 앉을 때,
외로움에 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주님 손을 내미시어
저를 일으켜 주소서.
잘하고 있는 일은 그침 없이
계속하려 합니다.
도와 주소서, 주님.
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



† <제8처>

♡그리스도 말씀하심

내가 예루살렘의 내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그토록 애를 태웠건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네들은 나를 보며 울고 있다.
가없다는 마음에 나는 그들을 위해 울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그들의 슬픈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를 보내는 이 여인네들의 눈물에
나도 위안의 말을 보낸다.
'내 다른 자아야', 온유를 품고
따뜻한 마음 베풀면 너는 나를 닮아 간다.

♣드리는 말씀

나의 예수님,
수난 중에도
동정까지 베푸시니 그 마음 헤아릴 길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소서.
제가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소서.
뒷전에서 빼죽거리며 저를 헐뜯는 사람들,
빚나간 생각으로 저를 비꼬는 사람들,
도와 준답시고 오히려 훼방만 놓는 사람들,
내 사생활 침범하는 사람들,
마음 아픈 데를 긁어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 대할 때마다 발끈하지 않고
내 혀를 제어하는 법을 알게 주소서.
온유를 외투를 제게 돌려 주소서.
마음 따뜻한신 주님을
제 뽕뽕이의 본보기로 삼으렵니다.
주님, 도와 주소서.

